

2009년 12월 아몬드 현황 보고서

2009년 12월의 선적량은 1억 4,700만 파운드이며, 2008년 12월의 9,300만 파운드에 비해 57% 증가했습니다.

분석

2008년 잔여분 유입:	4억 1,300만 파운드
2009년 예상 수확:	13억 5,000만 파운드
3% 손실 차감:	(4,000만 파운드)
전체 가능 공급량:	17억 2,300만 파운드
현재까지 선적 차감:	7억 1,900만 파운드
잔여 공급량:	9억 8,200만 파운드

선적

놀라운 수치입니다. 바이어 및 공급업체 모두 만만치 않은 수치를 예상하였지만 이렇게 엄청난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무려 57.5%나 증가한 선적량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미 7억 1,900만 파운드가 선적되었으며, 이는 지난 시즌 같은 시기에 비해 20% 증가한 것입니다.

수확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수확량은 13억 2,700만 파운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연말에 전체 양의 95%가 수확됩니다. 따라서, CASS(캘리포니아 농산물 통계 서비스)가 예상한 양인 13억 5,000만 파운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계 서비스가 내놓은 올해 예상치는 꽤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확정 재고(계약이 완료된 재고)

확정 재고는 4억 700만 파운드입니다. 미국 내 확정 재고는 지난해 1억 7,500만 파운드와 거의 같습니다. 수출 확정 재고는 32% 증가한 2억 3,100만 파운드입니다. 남아있는 미확정 재고(즉, 판매가 가능한 아몬드)는 5억 7,500만 파운드입니다. 다음 시즌으로 유입될 양을 최소로 잡아 2억만 파운드라고 가정하면, 현 시점에서 신규 수확 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가능한 아몬드는 3억 7,500만 파운드가 됩니다. 8월 신규 수확까지는 7개월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매월 약 5,300만 파운드의 아몬드가 판매 가능합니다. 넉넉한 양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

미국 시장으로의 선적량은 3,380만 파운드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록으로, 2006년 12월의 2,930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시장

해외 선적량도 1억 1,360만 파운드로 12월 중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최고 기록은 2007년 12월의 7,050만 파운드였습니다. 해외 시장 전체 선적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 2009년 12월 중국 및 홍콩으로의 선적량은 2008년 12월에 비해 647%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선적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했습니다.

2670 West Shaw Lane, Fresno, California 93711 U.S.A.
 Telephone (559) 435-2664 • Fax (559) 435-8520 • www.dercofoods.com • e-mail: derco@dercofoods.com

- 2009년 12월 한국으로의 선적량은 2008년 12월에 비해 119%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선적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증가했습니다.
- 2009년 12월 인도로의 선적량은 2008년 12월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선적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습니다.
- 2009년 12월 유럽으로의 선적량은 2008년 12월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선적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했습니다.
- 2009년 12월 중동으로의 선적량은 2008년 12월에 비해 107% 증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선적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선적량

다음은 아시아 주요국의 탈각 및 비탈각 아몬드 선적량 통계입니다(단위는 파운드).

국가	2009.8 - 2009.12		2008.8 - 2008.12		%변동
	탈각	비탈각	탈각	비탈각	
중국/홍콩	61,503,614	45,267,949	33,715,822	16,785,035	111%
일본	21,318,897	29,208	20,087,490	635	6%
한국	11,326,950	0	6,642,740	0	71%
대만	3,301,447	358,186	2,768,448	319,441	19%
말레이시아	1,869,336	0	961,700	0	94%
태국	1,388,199	525,612	970,750	0	97%
베트남	789,700	2,679,839	285,000	127,837	740%

결론

예상 수확량 13억 5,000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할 때, 캘리포니아는 이미 아몬드의 65%를 판매하였습니다. 지난해 이 시기에 캘리포니아의 판매율은 53%였습니다. 2009년 시즌이 고작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선적완료분 및 확정재고가 이미 11억 파운드가 넘는 상황이므로, 캘리포니아는 남은 양을 팔기 위해 굳이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하면서 살펴본 내용 및 의견입니다.

- 아몬드는 과연 나무에서 자라는 다른 견과류보다 가격이 계속 쌀까? (그럴 것 같음)
- 그동안 중국이 수입한 대량의 아몬드는 중국 새해에 얼마나 유통 및 소비될까? 재고는 얼마나 남게 될지 그리고 중국은 추가 구매를 위해 언제 시장에 재진입할까? (판매가 강세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3월에 시장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임)
- 개화 전망은? 센트럴 산호아킨 밸리의 재배자들이 겪고 있는 가뭄현상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충분한 비가 캘리포니아에 내릴까? (아닐 것 같음. 가뭄을 해소할 만큼의 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또한,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는 것은 벌들이 꽃가루 이동을 할 많은 날이 적다는 것임)

-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될까? 여전히 약세일까? (매우 그럴 것 같음)
- 몇개월 후 호주산 아몬드 가격이 나오면, 호주의 아몬드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호주는 저렴한 가격에 아몬드를 내놓을 것임. 호주의 아몬드는 특히 중동과 인도에서 고급으로 여겨지고 있음.
호주의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주의 총 수확량은 1억 파운드임. 이는 엄청난 양은 아니며, 아몬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바람직한 추가 공급량임)
- 인도는 얼마나 더 사려고 할까? (인도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로의 선적량은 지난해에 비해 16% 감소함... 따라서, 인도는 더 사들일 것으로 보임)
- 유럽은 얼마나 더 사려고 할까? (유럽은 2010년 4월 및 그 이후를 대비해 제품을 더 사야함.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2010년 2~4사분기를 커버할 물량이 유럽에 없다고 함)
- 중동은 얼마나 더 사려고 할까? (중동은 아직 라마단 구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물량은 2009년 캘리포니아의 수확량으로 총당해야 함. 카멜 슈프림의 재고는 매우 적으며, 산업용 아몬드 가격이 지난 2개월간 올라가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논파레일에 다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셀러들이 재고 현황을 재평가하고 재산정함에 따라, 오퍼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RCO FOODS